

한국BMS제약, 밀알복지재단과 청년 암환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 ‘리부트(Reboot)’ 진행

- 리부트 프로그램, 청년 암환자를 위한 취업/교육/문화, 위기상황 생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서울, 2018년 7월 23일) – 한국BMS제약(사장 박혜선)은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암환자 사회 재할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리부트(Reboot)’에 대한 후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부트(Reboot)’ 프로그램은 암 투병과 치료로 중단된 청년들의 삶을 재작동 시킨다는 의미로, 청년 암환자들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39세 암 환자 비율은 2005년 인구 10만명당 284.4명에서 2015년 406.2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부트(Reboot)’는 이처럼 젊은 암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데 여전히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이 많고 사회적 지원이 미미한 현실을 고려해 기획됐다.

리부트 프로그램의 모집 대상은 암 진단 후 치료를 받고 관해(완치) 판정을 받은 만 19~39세 환자이며,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www.miral.org)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miral4664@hanmail.net)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7월 23일(월)부터 8월 31일(금) 까지 약 6주 간 접수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정한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취업/교육 서비스와 같은 문화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도출, 기금 조성에서 실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한국 BMS 직원들의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리부트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부금과 회사의 후원금으로 이뤄진 1:1 매칭 그랜트로 운영되며, 한국 BMS제약의 사내 봉사활동 단체인 H2O(Hearts & Hands as One)의 주도하에 뜻을 같이 하는 직원들의 참여로 진행된다.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젊은 암환자들이 늘어나고, 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암생존율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암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청년 암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암을 이겨낸 청년들이 학업과 경력의 단절을 딛고 일어나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라며, 한국BMS제약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청년 암환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BMS제약은 지난 1999년부터 꾸준히 ‘동명아동복지센터’,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국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임직원들의 모든 일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BMS 글로벌 캠페인 ‘Who Are You Working for’의 의미를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